참선이 가장 수승한 수행법

유행좇듯 방법찾으면 실패
마음 조용해져야 바로보여

교수시절에는 학교에서 강의하느라 여느 스님들처럼 사찰의 중요 행사를 직접 행하지 못했던 스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중노릇이 바로 엄격한 자기 다스림이라 믿었고, 매일 아침 두시간 만큼은 온전히 자기 수행에 바쳤다. 얼마 전까지는 새벽 예불에도 직접 참여했던 스님은, 지난해 새벽 예불에 나가다 넘어져 다친 이후 방에서 혼자 예불을 올리신단다.



◇모든일을 행함에 있어 마음을 바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인환스님.

경내를 돌아 다실에 들어왔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 주시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일반인들에 선實修 강의

"내가 동국대 교수로 부임한 이후 정년 때까지 지도했던 과목 중에 '선실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선의 이론과 실제를 가르치는 강의인데, 사실 기운이 넘치는 젊은 학생들이 정각원에서 무념무상의 경지를 향해 앉는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지요. 하지만 단 1분 만이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내 수업을 끝까지 들었던 학생들은 아마도 바로 앉는 법 하나만은 제대로 배웠을 겁니다. 바로 앉아 자신을 살피는 일조차도 만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동국대 사회교육원에서 일반인들을 위한 선실수 강좌를 맡고 있습니다."

기자도 10년 전 스님의 강의를 들었다. 아침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스님의 선실수 강의시간에 맞춰 가느라 아침잠을 설치기도 하고, 때로 지각을 해서 몰래 뒷문으로 들어가기도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학점을 따기 위한 수업이라고만 생각했지 스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다는 생각에 뒤늦은 후회가 밀려들었다.

"요즘 세상은 참으로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 다들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예전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수행하는 것도 누가 이 수행법이 좋더라 하면 그쪽으로 확 돌아가고, 또 누가 아니다, 이게 더 좋다 하면 또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럽니다. 좋은 것은 동서남북 누가 하더라도 다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원리대로, 꾸준히 믿는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수행이 이뤄지지 못하는 겁니다. 좋은 걸 계속 이어 나가는 게 정진입니다. 꾸준히 끈기를 갖고 하면 자신도 모르는 효과 아닌 효과가 여기저기서 나와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도 한 두번 해 보고는 눈에 보이거나 제 맘에 드는 결과가 금방 드러나지 않으면 곧 그만두곤 합니다. 수행하려는 마음가짐부터가 어긋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수행은 효과를 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건강법인 양 효과만을 따지다 보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금하다 말고 하는 것입니다."

효과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 자신만 해도 겨우 1박2일 수련회에 갔다와서도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내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집안문제로 복잡해진 마음을 다스려 보겠다고 〈금강경〉을 한번 읽고서도 큰 공덕이 있겠지 하는 상을 먼저 내세웠기 때문이다.

수행한다는 그 마음조차도 버리고, 수행에 임해야만이 진정한 수행이 되는 것을 왜 우리 중생은 매일 배우고 또 배우면서도 금새 잊어버리는 걸까. 무명에 싸인 중생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스님께 이떠한 자세로 수행에 임해야 하는지 다시 가르침을 구했다.

흔들리는 마음 정념으로

"불교 공부 한다고 해서 특별히 무엇을 얻는 걸로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속엔 이미 부처님과 중생, 한마음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한마음 밝은 것을 지금 쓰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갖 번뇌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예요. 바로 보고 살기 위해서는 그 번뇌 망상 가득한 업장을 소멸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로 보는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수행법 가운데 참선이야 말로 가장 수승한 방법입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흔들리는 마음을 정념으로 돌리고 또 돌리는 수행을 하다보면 더 이상 끄집어낼 번뇌 망상이 없어지게 될거예요.

내 마음이 스스로 조용해지니, 세상이 조건 없이 바로 보이는 것이지요. 이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진(眞)참회하는 일이 바로 수행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무얼 얻으려고, 당연히 얻어지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본래 자신의 자리로 마음을 돌리고 또 돌리세요. 모든 관심사를 '수행의 중심'에 돌리고 돌려 정념에 이를 때 진정한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래 자신의 자리로 돌리고 또 돌리세요"

글=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인환 스님은?

日 동경대 文博, 동국대서 20여년 후학 양성

1931년 함경북도 원산에서 태어났다. 52년 부산 선암사 선원에서 출가했으며, 56년 해인사 금강계단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67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와 동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일본 유학을 떠나 75년 스님의 신분으로는 국내 최초로 동경대에서 불교사상사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76년 캐나다 토론토 대각사를 창건했으며, 82년부터 96년까지 동국대 불교대학 선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스님은 대학 강단에서 물러났지만, 지금도 곳곳에서 강의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 10년째 부산 화엄불교대학에서 매달 2회 어록 강의와 참선 실수를 지도하고 있으며, 2월 한 달간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사찰 관음사에서 현지 교민불자들을 위해 강의한다.



허주스님의
스 님 이 야 기
허운스님

동해 해조음같은 염불소리
포교생활 10년…시종여일

출가의 인연은 참 묘한 것이다. 스님들의 입산 동기는 저마다 다양한 사연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나는 우연찮게 먼저 출가한 집안 육촌형을 따라서 결심을 하게 되었다. 육촌지간은 먼 것 같지만 기실 아주 가까운 혈연이다. 윗대의 조부되는 어른끼리 친형제이니 아주 가까운 인척이 아닌가.

허운(虛韻)스님. 세속의 연배는 나보다 두 살 위인데 어릴 적부터 보아온 그의 인품은 아마 열 살은 더 차이가 날 정도로 다른 부분이 있었다. 성격이 자애로워서 집안의 많은 형제들이 그를 무척 좋아했는데 나도 예외는 아니어서 방학때가 되면 큰집에 가서 그와 함께 살다시피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연유로 30년 가까이, 그것도 절집에 와서도 사형사제의 인연으로 지속되고 있다.

처음 동진출가(童眞出家)를 결심하고 통도사 강원에 학인 신분으로 공부하던 허운스님을 찾아갔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 낡은 걸망 하나 메고 집을 찾았던 스님의 모습을 지울 길 없어 몇 날 며칠 열병을 앓고 내린 결론이다. 어찌나 야박하게 문전박대를 하던지 그날 이후로 그에게 서운함을 느낀 적은 한번도 없었다. 이유는 너의 자리가 이곳은 아니라는 거였는데 아무튼 막무가내로 나의 결심을 굽히지 않자 체념한 듯 은사스님께 데려다 주었다. 그래서 절집에 와서도 사형사제의 인연을 맺게된 것이다.

허운 스님은 어려서부터 나이에 비해 영감이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성품이 조용하고 차분해서 그런지, 아니면 타고난 목청에 선비같이 깔끔한 외모 때문인지는 몰라도 나이에 걸맞지 않게 점잖은 스님을 가리켜 '영감' 이란 별칭이 붙은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다

스님의 독경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그 나이에 어떻게 저런 음색을 갖추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그런 소리를 갖게되기 까지 얼마나 피나는 고통과 노력이 동반되었을까. 스님의 표현을 빌자면 목에서 핏덩이가 몇 번은 나왔다고 했다. 말하자면 어려서 목청이 터졌다는 얘기인데 그 염불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지금도 신심이 절로 난다. 예전에 허운스님이 하는 새벽 도량석 소리는 동해의 해조음(海潮音) 같았다.

중이 염불 잘하는 것이야 뭐 특별할 것 까지는 없지만 그 소리에 의해서 심신이 다 맑아지고 고요해지는 것은 늘 오래도록 가까이 보아도 변함없는 그의 성품 때문이다. 갓 스물을 넘긴 나이에 범어사, 통도사 강원에서 중강(仲講) 소임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나이가 훨씬 많았던 학인 스님들을 통해서 그 인품이 널리 회자되기도 했다.

허운스님은 늘 자비스럽다. 그와 함께 있으면 시비가 없다. 그 누구의 험담도 한번 들은 바가 없다. 그 어떤 거창한 구호도 그의 입을 통해 들은 적이 없다. 그저 묵묵히 주위를 걱정하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쪼개어 주변 어려운 스님들에게 베풀기를 주저 않는다. 워낙 시비를 가까이 않는 성격이라 도시생활이 어울릴 것 같지 않는데 도심 한가운데 있는 포교당에 자리한지도 어언 10년은 되는가 보다. 포교당이란 곳이 중으로서는 고달프고 힘든 상황이 많은 곳이다. 도시생활을 오래 하다보면 출가 본연의 정신에서 때때로 멀어질 수 있고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내면이 건조해질 수도 있는데 주변에 대한 그의 시선은 언제나 따뜻하고 자비스럽다.

요즘 우리 절집 정서는 자비문중이란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정치적이고 배타적으로 변해버렸다. 종단 정치상황을 비꼬는 것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마음 한구석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는 허운 사형을 보면 그나마 많은 위안이 된다. 포교당의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면서 주변의 여러 스님들



에게 그 따뜻한 체온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절로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진다.

얼마 전 첫째 사형인 법주스님과 차를 마시고 있는데, 대뜸 하는 말이 "허운스님 핸드폰 하나 바꿔주라. 하도 오래 돼서 배터리 충전을 해도 한두 시간도 못간대. 지 핸드폰이나 바꿀 일이지 웬 용돈을 이렇게 주고 가냐…"

폴더형식의 핸드폰이 나온지 오래인데, 허운스님은 아직도 탱크(?)라 불리는 검정색의 덩치 큰 핸드폰을 쓰고 있다. 포교당 주지 소임을 맡다보면 요긴하게 쓰이는 핸드폰인데 배터리가 쉽게 방전되어 여간 불편한 게 아닌가보다.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구입하기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무거운 그것을 고집하고 있다. 보다 못한 법주사형이 바꿀 것을 권해도 괜찮다고 웃어버린다.

뭐라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 씀씀이에 늘 왜소해지는 내 자신을 숨길 수 없을 때가 많다.

상주에 내려왔다가 오랜만에 셋이서 이틀 밤을 묵고 돌아가는 허운스님을 보고, 독백처럼 읊조리던 법주 사형의 말이 떠오른다.

"허운이 저 사람,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 함창 자광사

귀 대창 불교 건축
- 사찰 대웅전 건축 전문 업체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 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 하실 스님 상담 환영

귀 대창 목재
* 태백산 일대에서 벌목한 육송
- 판매 종류규격
- 연목 : 12자~24자까지 5치~8치
-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자 2치
18자 : 1자 ~ 1자 8치
20자, 24자] 1자 ~ 1자 8치
30자 : 1자 ~ 1자 7치
36자, 40자] 1자 ~ 2자까지
- 기둥 - 도리 - 대들보 - 일주문 기둥

※ 원하시는 치수로 제작 가능합니다. 주문 연락 주십시요.

(주) 대창종합개발
대표 본사 02)595-1573 FAX 02)595-1575
전화 제1공장 054)781-4989 FAX 054)781-5989
H·P 019)327-0374
이종봉 합장

몸속 독(노폐물)을 빼자
수목의 힘으로 온몸을 상쾌하게 !!
"발바닥에 붙여 몸속 독을 빼는 배독요법" 일본 화제의 상품!!
- 부모님께 가까운 친지에게 건강 선물 -
44,000원/30매 국산
50,000원/30매 국산골드
50,000원/30매 스즈끼- 일본산
효과 없을시 환불 함
▶ 발과 불편한(목, 어깨, 허리, 팔 무릎 등) 부위에 사용 경제적인 입니다.
▶ 자고나면 몸속 노폐물이 누렇게 변한 것을 직접 확인
▶ 취침전 발에 붙여서 상쾌하고 편적이게 이여 주는 건강상품
▶ 일본 이트 상품 / 국내 인기 상품
▲ 이런 분께 권해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께 효도선물 몸이 붓고 손발이 차고 저린 분, 피로하신 분 종일 서서 일하는분(매장근무), 산후조리, 운동선수 /항상 피곤한분, 각종 사고 후 / 화공약품 및 유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 / 이 미용실 등등
모 집
대리점 취급점
각 지역 홍보 사원
가자목초 / 가자라이프 www.GAJA.TV
(02) 5454-010 농협 063-02-124288 이수일

관 절 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2002학년도 봄학기 불교교육과정 수강생 모집안내】
모집과정

과 정 명	세부과정명	과목(반)명	교강사명	교육기간	주/야 구분
교양불교	불교란 무엇인가?	I	권 기 종	1학기	주간
		II	최 봉 수	1학기	주간
	참선수행	I(참선법의 이해와 실제)	인환스님	1학기	주간
		II(참선공안의 참구와 실참)	인환스님	1학기	주간
불교연구	경전연구	維摩經	권 기 종	2학기	주간
	기초한문	擊蒙要訣	심 재 동	2학기	주간
	한문해석법	金剛經	심 재 동	2학기	주간
	논어강독		이 중 찬	2학기	주간
불교전문	불교전문교육	불교문화의 이해	최 종 석	5학기	주간
		유식사상	김 사 업		
		초기대승불교	차 차 석		
		경전강독(I)	김 효 귀		
박물관교육제정	불교박물관대학		문 명 대	2학기	주간
문화·예술	불교전통꽃꽂이		정 진 희	2학기	주간

지원자격
일반성인으로 자격제한 없음(불교전문교육과정은 고졸이상 학력소지자에 한함)
원서교부 및 접수
2002년 2월 1일(금) ~ 2월 28일(목), 사회교육원 교학과(90주년 학술관 1층)
제출서류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와 사진 2매
※불교전문교육과정은 주민등록등본 및 고졸이상의 학력증명서 각 1부 추가
문의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과
TEL :(02) 2260-3728~9 / FAX :(02) 2260-3730
홈페이지 : http://dgucc.dongguk.ac.kr/~soedu